



KB 국민은행

필리핀 광가시난팀 12월 보고서

김민철, 김혜지, 이해진



RaonAtti

12월

mon	tue	wed	thu	fri	sat	sun
	1	2	3	4	5	6
	덤프사이트	푸가로 WEST 데이케어 센터	푸가로 EAST 데이케어 센터	푸가로 그린하우스	휴식	휴식
7	8	9	10	11	12	13
덤프사이트	덤프사이트	푸가로 WEST 데이케어 센터	푸가로 EAST with Arnel, Teddy	푸가로 그린하우스	덤프사이트 책상 만들기	Anda 여행
14	15	16	17	18	19	20
Anda 여행	푸가로 WEST 크리스마스 파티 with Kiehl	푸가로 EAST YMCA 크리스마스 파티	덤프사이트 크리스마스 파티	Ilocos 여행	Ilocos 여행	Ilocos 여행
21	22	23	24	25	26	27
휴식 홈스테이 준비	산타크루즈 홈스테이 시작					
28	29	30				

CONTENTS

1. 활동지 이야기

#1. 덤프사이트

#2. 푸가로 데이케어 센터

#3. 그린하우스

2. 산타크루즈 생활기

#1. 동네 소개

#2. 가족 소개

#3. 아띠들의 크리스마스

#4. 아띠들의 새해맞이

#5. 필리핀식 웨딩문화

3. 그 외의 이야기

#1. Anda 여행

#2. Ilocos 여행

4. 우리의 이야기



첫 번째 장

활동지

이야기

덤프 사이트



12월 아띠 클라씨

12월의 라온아띠 14기는 중간평가 때 받은 피드백을 최대한 실제 활동에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12월에는 H부터 O까지 가르쳤다. 그리고 나이를 기준으로 반을 나누어 곧 잘 따라하는 5-6세 이상의 아이들에게는 지금처럼 진도를 나가고 적극적으로 더 해보고 싶다고 이야기하면 가지고 있는 A부터의 worksheet를 하나씩 제공하여 아이가 스스로 복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직 어린 친구들에게는 매일 한 장의 Worksheet를 꼼꼼히 따라쳐보고 플래쉬카드와 알파벳송을 가지고 알파벳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덤프 사이트



아이들을 위해 책상을 만들자!

그동안 아이들은 책상이 없어서 울퉁불퉁한 바닥이나 아미들의 허벅지 위에서 공부를 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우리는 중간평가 때 '덤프사이트에 책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

덤프 사이트



아이들을 위해 책상을 만들자!

이 제안이 받아들여져 12월 12일 YMCA 맥가이버 초코의 감독 아래 책상을 만들었다. 롤리, 킴, 아 띠들 뿐만 아니라 에몽도 힘을 보탤다. 총 3개의 책상이 만들어졌고 2개는 right side에, 1개는 left side에 놓기로 했다. 주황색으로 페인트 칠도 끝냈으며 현재 팡가시난 YMCA 건물에 보관되어져 있다. 14기는 활동이 마무리 되어 다음 기수인 15기부터 아띠 클라쎄에 사용되어질 예정이다.

덤프 사이트

크리스마스 파티, 준비부터 행사 당일까지

크리스마스는 아띠들이 맞는 가장 큰 연중 행사다. 사실 12월 크리스마스 파티 준비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덤프사이트 주민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기 위해 사전에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갔다. 좀더 재밌고, 좀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크리스마스 파티가 되기 위해 아이디어를 모았다.

처음엔 “YMCA 수영장으로 아이들을 초대해 파티를 열면 어떨까?” 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동안 수영 강습을 받는 YMCA Pre-school 아이들을 보며 덤프사이트 아이들을 떠올리기도 했고 YMCA를 좀더 알리고 싶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지미 총장님과의 회의 끝에 ‘불가능 할 것 같다’는 답을 내렸다. 많은 덤프 사이트 아이들이 피부병이나 상처를 갖고 있는데, 정화 처리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YMCA 수영장을 이용하면 더 심각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외부로 사람들을 초대하면 바쁘거나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렇다면 모두가 함께 할 수 없게 된다. 지프니 대여 비용 등 행사 진행 이외에 부수적인 비용도 많이 든다고 보았다.

결국, 우리는 덤프 사이트 블루하우스에서 Feeding Program과 모두 다같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준비해서 상품도 타며 남녀노소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감사하게도 YMCA pre-school 학부모님들께서 덤프사이트 주민들께 드릴 선물을 제공해주시고 선생님들이 포장해주셨다. 행사 당일엔 YMCA의 메인 셰프 마크의 도움으로 주민들과 나눌 룸 뽀아 상하이, 기닐링을 만들었다. 에몽, 카일이 아이들에게 나눠 줄 선물 포장을 도왔으며 행사 진행을 위해 라온아띠의 코디네이터인 롤리와 킴 이외에도 많은 YMCA 친구들 제이크, 초코, 아르넬, 테디, 에몽, 카일, 제럴딘, 자이러스가 힘을 보탰다.

덤프 사이트

준비 과정



덤프 사이트

주민들과
함께한
즐거워 시간!



덤프 사이트

주민들과
함께한
즐거운 시간!



덤프 사이트

주민들과
함께한
즐거운 시간!





덤프사이트 개인 소감

우리 아이들과 2015년 마지막을 보내서 좋았다. 특히 크리스마스를 계기로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 너무나 행복했다. 간단한 게임과 풍선하나로 이렇게 아이들이 행복하게 웃으면서 노는 것을 보고 속으론 기쁘면서도 슬펐다. 시간이 지나 에세이를 쓰다보니 그때 그 순간 감정을 다 꺼내서 적지는 못하겠지만 많은 것을 느꼈다. 나에게겐 작은거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크게 다가가고 느껴진다는 것을... 그리고 작은것에 항상 감사해야된다는 생각과 다른이에게 공헌한다는 것에 대한 행복을 느꼈다. 이미 덤프사이트 주민들은 나에게 좋은 친구이며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다른 나라에 있을지라도... 12월은 많은 행복과 아쉬움을 한꺼번에 가져다 준 달인거 같다.

덤프사이트 개인 소감



덤프사이트 속, 나

덤프사이트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던 날, 문득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두 귀를 스쳤다. 나도 모르게 가슴이 울컥했다. 쓰레기 산을 눈 앞에 두고 아이들의 즐거운 비명을 듣는 아이러니한 정경 속에서 나는 그동안의 덤프사이트 속 ‘나’를 되돌아 보았다.

솔직히 덤프사이트 활동이 마냥 좋지만은 않았다. 때로는 부족한 체력때문에 지치기도 했고 내 마음 같지 않은 상황때문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고민에 빠져 나 혼자 진을 빼기도 했었다. 그럼에도 내가 덤프사이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소중하게 잡고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내게 있어 덤프사이트는 적나라하게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비추는 거울같은 곳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덤프사이트를 통해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을 많이 보았다. 내가 버린 쓰레기의 종착역, 사람들의 이기심 덩어리 등등 뿐만 아니라 환경 때문에 드러나는 나의 좋지 못한 태도와 같은 내가 보고 싶지 않았던 나의 모습들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아직 배울 것이 산더미인데 벌써 하산하라고 하시다니요.’ 소림영화에서 나올 법한 대사를 읊으며 마음을 다 잡았다. 어쩌면 덤프사이트는 이미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었는데 내 주머니는 주먹만 해서 내가 다 담지 못한 것 일테다.

마지막에 아이들과 꼭 껴안고 최선을 다해 진심을 꺾꺾 눌러담아 ‘Malusog(건강해)’라고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자꾸 날 놔주지 않아서 한참이나 붙잡혀 있었다. 바란 건 아니었지만 아이들이 나를 밀어내지 않고 내가 보고싶을 거라고 이야기해줘서 사실 정말 고마웠다. 아이들의 온기만큼 몽글몽글하고 따뜻했던 덤프사이트. 절대 잊지 못할 것 같다.



덤프사이트 개인 소감

덤프사이트 크리스마스 파티를 보내며,

사실 나는 사람들이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며 4개월간 관계 맺어온 우리 때문이 아닌 우리가 가져온 음식이며 식료품 때문에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롤리가 호명을 하고 한 가족 한 가족마다 라면, 쌀 등이 담긴 꾸러미를 나누어 드렸는데, “감사합니다” 라며 너무나 행복한 표정을 지으셨다. 결국 사람, 관계보단 생계가 우선이구나 하는 생각에 그동안의 활동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이 생각을 일로코스에 갔을 때 친구들과 지미 총장님께 나누게 되었다. 명색이 크리스마스 파티인데 하나도 즐겁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그런 나에게 친구들은 “너희가 따갈로그여서 못알아 들어서 그렇지 덤프사이트 주민들이 너희에게 진심으로 고마워 했다”라고 말해줬다. 필리핀 사람도 아니고 외국인인데 덤프사이트까지 와서 싫은 기색 하나 없이 아이들과 함께 놀아줘서 참 고마웠다고 하셨다고 한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그동안 잘 알고 지내던 어머니들은 직접 핸드폰을 꺼내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셨고 아이들은 우리와 언제나 그랬듯 즐겁게 놀았다. 나만 보면 울던 아기도 어느새 익숙해졌는지 나를 보고 활짝 웃어줬다. 그날 수많은 장면 속에 내가 ‘빨리감기’한 장면이었다.

사실은 우리가 무언가를 바래서 덤프사이트에 간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오라고 해서 간 것도 아니다. 우리가 ‘친구’가 되어 달라고 했고 그분들은 흔쾌히 친구가 되어주셨다. 오히려 우리가 더 감사해야 하는데 그분들의 마음을 더 이해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보고 싶은 모습, 장면만 보려 했다.

이제 활동이 다 끝났는데, 난 여전히 제자리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어렵다. 그렇지만 한국에 돌아가 내가 이분들께, 아이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려 한다. 잊을 만할 때마다 내가 사랑받은 장면을 ‘되감기’ 해서 돌려볼 것이다.



푸가로



그림 그리기 수업

감사하게도 울산YMCA 회원님들로부터 교육 기자재를 후원받았다. 많은 크레파스와 사인펜 등으로 아이들과 무엇을 하며 즐겁게 시간을 보낼까 고민하던 중 ‘아이들이 자유롭게 그림 그릴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은 한정된 크레용 갯수 때문에 색칠 공부도 쉽지 않았던 까닭이다. 또한, 그림 그리기는 색칠공부와는 다르게 아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게 8절 도화지와 크레파스를 바리바리 싸들고 푸가로로 향했다.

푸가로



그림 그리기 수업

“아빠, 엄마, 형, 누나, 동생, 나! 가족들을 그려보세요!” 가족 구성원을 그려보라는 주제를 주었는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그림그리는 것을 어려워 했다. East 데이케어 센터 아이들은 그나마 나왔지만, West 데이케어 센터 아이들을 그림 그리게 하는 데 아띠들이 찢찢 댔다. 같이 그려주자니 본래의 취지(아이들이 자유롭게 그림 그리게 하자)에 맞지 않고 그냥 냅두기엔 아이들이 손도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엔 ‘최소한으로 도와주자’고 결정했고 잘 마무리해서 돌아왔다.

푸가로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

크리스마스 시즌이 도래했다. 커리큘럼 상 크리스마스 장식 만들기가 나와있기도 해서 크리스마스 관련한 만들기 활동을 준비하기로 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성공적'이었다. (매우 부끄럽지만) 자화자찬의 이유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이유1. '짠'하고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도록 했다.

이유2. 그만큼 간단하게 구성했다.

이유3. 같은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모양은 아이들 개성에 따라 다 다르게 나왔다.

이유4. 아이들도 즐거워 했고 선생님도 좋아해 주셨다.

푸가로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

그런데 사실 처음 아이들과 무엇을 만들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전날 저녁까지도 심지어 재료까지 다 준비했는데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많았다. 고민이 많았고 그만큼 준비를 많이 했던 만큼 잘 진행됐던 것 같다. 또한, 잠시 자리를 비운 김을 대신해서 많은 Volunteer들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했다 (동생들이 많아서 그런지 아이들 돕는데 다들 수준급이다!). 원래는 오전 수업만 진행하기로 했는데 선생님께서 오후까지 부탁하셔서 적잖이 당황했었는데, 마지막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우리의 열정을 불태우고 돌아왔다.

푸가로

크리스마스 파티!

푸가로 데이케어센터 크리스마스 파티는 East, West 두 번에 걸쳐 진행됐다. West 데이케어 센터 크리스마스 파티는 마침 귀염둥이 Nathan 생일이라서 생일파티와 함께 진행됐다.

우선 두 파티 모두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 꾸러미, 사탕 목걸이를 선물로 준비해 갔다. 파티 때 할 게임도 준비했다. 'Bring me', '의자 빼기', '빙빙 돌다가 외치는 숫자대로 짝짓기', '모션 보고 동물 맞추기' 게임을 하기로 했다.

게임을 하며 (파티에 빠질 수 없는!) 춤도 추며 아이들, 뿐만 아니라 선생님, 학부모님들까지도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맛있는 음식도 함께 나누며 그동안의 정을 느낄 수 있었다. East 데이케어센터 크리스마스 파티 땐 비가 많이 와서 물에 빠진 생쥐 꼴로 도착했는데, 아이들과 선생님, 학부모님들이 우릴 반겨주시고 반응도 너무 좋아서 '갈지 말지' 고민했던 것이 무색하게 신나게 보냈다.

덤프사이트 파티까지 3번에 걸친 크리스마스 파티였는데, 그때마다 volunteer들이 우리와 함께 사탕 꾸러미도 만들고 Kiehl같은 경우는 같이 가서 도와주기도 했다. 친구들이 있었기에 좀 더 수월하게 파티를 끝낼 수 있었다. 많은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다.



생일 주인공 'Nathan'!

푸가로

크리스마스 파티!



그린하우스



12월 그린하우스 첫째주 저번에 땅을 고르는 작업을 끝낸 상태라서 김과 함께 씨앗, 비료, 페인트를 사서 들고 간 다음 작업을 진행하였다. 인원을 나눠서 몇 명은 씨앗과 비료를 담당했고 나머지 인원은 페인트 칠을 하였다. 학교 학생들도 어느정도 관리에 신경써주고 있는 상태여서 한결 수월하였다. 페인트 칠을 하니 그린 하우스가 좀더 '그린 하우스'다워졌다.

그린하우스



둘째 주 마지막 그린하우스 오늘은 김이 그린하우스를 마무리 하자고 하였다. 왜냐하면 그 다음주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이 남은 페인트칠에 박차를 가하여 마무리를 지었고 추가로 페트병을 잘라 줄로 매달은 다음 조금 더 많은 채소를 심었다. 마무리로 주변 정리를 하고 그린하우스 프로젝트는 끝이 났다. 푸가로 학생들이 관심을 가져서 깔끔한 상태로 15기에게 무사히 전달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푸가로 개인 소감

첫 크리스마스 파티 시작을 푸가로 데이케어센터부터 시작하였다. 시작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더니 꿀꿀하게 파티를 하였다. 하지만 파티를 하는 동안에는 너무나 재밌었고 아이들도 신나하였다. 그리고 몇몇애들이 춤을 잘춰서 신기했고 너무나 귀여웠다 이런 아이들을 보는게 마지막이라니 아쉬웠다.

하지만 아직 살아갈 날은 남았고 필리핀 여기 푸가로 아이들에게 갈 시간 또한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슬프지는 않다. 아이들과 크리스마스 파티를 계기로 잘 마무리 할 수 있어서 좋았다. 건강하게 자랐으면 하는 바람이다.

푸가로 개인 소감



데이케어 센터

푸가로를 방문할 때마다 우리는 이번 달에는 특히 WEST의 소 눈을 담당하고 있는 네이단의 생일도 함께 축하할 수 있어서 좋았다. 크리스마스 파티를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했는데 데이케어센터 너머로 푸가로를 가본 적이 없었던 것을 새삼 깨달았다. 마지막 활동하는 날에 새로운 체험이라니.

4개월 동안 아이들을 만나면서 한번도 아이들이 나를 기억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라온 아띠로서 뭔가 아이들을 inspired시켜야 겠다고 생각한 적도 없다. 그저 아이들이 건강하게 엄마 아빠 속 덜 썩히면서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그린하우스

이번 달에도 비록 몇 번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진행했다고 하니 마음이 놓인다. 필리핀의 작물 자라는 속도가 경이로울 수준이라 그린하우스 속 토마토 싹은 벌써 한 뼘 정도 자라있다. 그린하우스를 좀 더 할 수 있었다면 심은 식물들 자라는 걸 지켜보면서 더 정을 붙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쉽다. 우리가 산타크루즈에서 살게 되면서 지금은 확인할 수 없지만 부디 식물들이 살아서 우리를 다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푸가로 개인 소감

가족 그림 그리기 시간이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자 기다리기 심심해서 ‘나도 한 번 그려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초등학교 졸업한 이후로 거의 10년 만에 잡아보는 크레파스였다. 아빠, 엄마, 오빠, 나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림 실력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었다. 하하.

신기하게도 그림 속 우리 가족은 어릴 적 내가 본 가족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아빠, 엄마를 크게 오빠, 나는 작게 그렸다. 하지만 지금 오빠는 아빠보다, 나는 엄마보다 더 커졌다. 어릴 적 당연하게 생각하던 가족의 모습이 지금은 어색해졌다. 세월이 많이 흘렀나 보다.

한 가지 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빠, 엄마, 오빠는 무엇을 좋아하시지? 평소에 어떤 옷을 입고 다니시지? 무슨 색을 좋아하시지?”라는 질문을 하고 있었다. “맞아, 엄마는 초록색을 좋아해서, 아빠는 주로 어두운 색 신발을 신으셔서, 오빠는 안경을 쓰고 다니지.” 스스로 답도 내려보았다.

1분이라도 이렇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있었나.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어느 순간 뒷전이진 않았을까. 어릴 땐 우리 가족이 내 세계의 전부였는데, 언제부터 나는 혼자가 되었지? 아니, 왜 혼자라고만 생각했지?

8절 도화지를 채워갔던 것처럼 내 인생의 도화지에도 다시 가족을 그려 넣어야 겠다. 그땐 좀더 이쁘게 그려야지.



두 번째 장

산
타
크
루
즈

생
활
기

동네 소개



우리 동네, 산타 크루즈

12월 22일부터 에밀리오, 엘레나, 마리나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다. 우리 동네는 다구판으로 부터 약 1 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San Jacinto시에 속해 있는 Brgy. Sta.Cruz이다. 11기부터 라온 아띠는 이 곳에서 약 한 달간 홈스테이를 하고 있다. 마을 중앙에 있는 농구장을 기준으로 아랫 마을, 윗 마을로 나뉘어지는데 에밀리오와 엘레나는 아랫 마을, 마리나는 윗 마을에 살고 있다.

에밀리오의 가족 소개



Tatay Danny(49)

터프의 결정체 빠빠!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실때는 멋을 내는게 예사롭지 않다.
젊었을때 한가닥 하셨을거 같은 생각이 든다.

Ate Haidee(27)

빵빵가(마닐라근처 4시간 소요) 공장에서 일함. 매우 바쁨.
항상 나를 챙겨주고 걱정해주는 제2의 엄마같은
우리누나 하이디!

Nanay Hadjie(48)

이쁘시고 착한 마마!
포스가 장난이 아니고 못질과 시멘트작업은 기본...
막내가 짧은 바지 입으니 완전 혼내심.
생각보다 터프하시지만 여리고 귀여우신 맘!

Ading Harris(22)

바기오에서 일하는중! 많은 이야기를 못 해봤지만 엄청 웃긴 동생인거는 확실하다!



Bunso Dhanica(16)

나한테는 항상 자기 착하다고 말하지만 하이디한테 맨날 돈달라고 떼쓰는거 보면 그냥 막둥이... 너무나 귀엽고 맨날 말할때 인상을 써서 항상 내가 퍼주곤 한다.

가족 사진 찍는데 어디 갔었어.... 우리 막내...

엘레나의 가족 소개

Tatay Rudy

언제나 행복한 우리 아빠. 춤추고 노래하시는 것을 좋아하시고 흥이 많으셔서 나랑 너무 잘 맞는다. 눈이 마주치면 언제나 외치는 우리의 구호는 '하야하이- 양부하이- (행복한- 인생!)' 술 담배를 너무 많이 하셔서 때때로 걱정스럽다.



Nanay Ebot

21년동안 바랑가이 캡틴의 비서로 산타크루즈의 살림을 꾸려오신 근면성실의 아이콘.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소피' 캐릭터 느낌과 닮았다. 차분하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엄청난 배려심의 소유자시다. 알덴 리차드의 빅 팬! 영어를 엄청 잘 하셔서 매일 나와 이야기를 나눈다.



Kuya Richee

Ymana패밀리의 둘째 아들.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지지만 요즘엔 나랑 농담도 하면서 많이 친해졌다. 우리집 전속 드라이버. 씨-익 웃는데 완전 살인미소다. 다 큰 형제들 중 유일하게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 TV 앞에서 저 자세로 농구 경기를 매일 본다.



Isabel

우리 집 공주님. 핑크를 엄청 좋아하며 날씬한 몸매를 유지한다며 잘 안먹어서 우리 모두 다 걱정하고 있다. 학교 가기를 싫어해서 잘 안가는데 공부는 또 엄청 잘하는 사기캐릭터이다.

마리나의 가족 소개

Tatay 부다

'Inom(마시다)'로 함축되시는 분. 거의 매일 밤 술을 드시고 더불어 담배도 정말 좋아하십니다. 타타이께서는 닭 알레르기가 있으셔서 우리집에서 먹는 고기는 돼지 아님 생선 뿐이다(아, 가끔 염소나 개를 잡아 친척들과 나눠 먹기도 한다). 타타이는 현재 바기오에서 관광객 대상으로 말 사업을 하시고, 바랑가이 Ccounselor 일도 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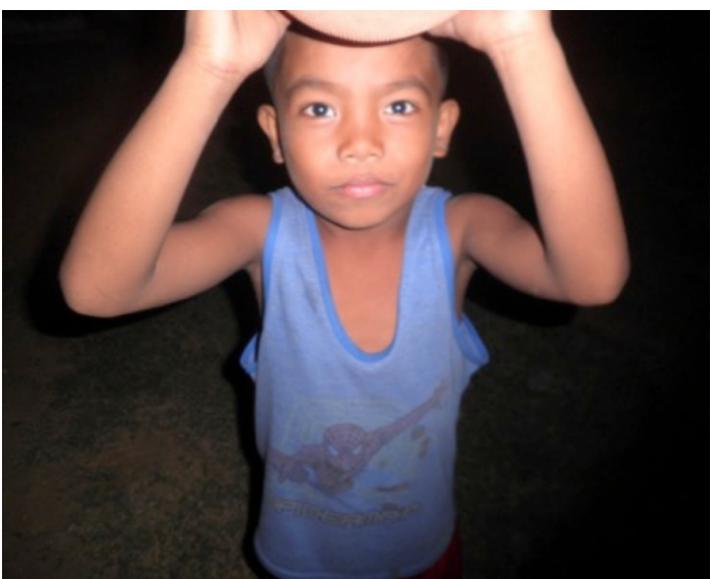
Nanay 토라

'Maingay(시끄럽다)'로 함축되시는 분. 이 집 막내 아들 AJ가 말썽꾸러기라 호통치실 때가 많으셔서 그렇다. 그래도 큰 키와 늘씬한 몸매, 긴 생머리를 보유하고 계셔서 나의 부러움을 사고 계신다. 가끔 무섭기도 하지만(AJ 혼 내실 때면 나도 같이 쫓다..) 'Marimar', 'Korina' 등으로 나를 부르시며 딸처럼 대해 주려 하십니다.



다다이(Angelica)

Abrio 집안 큰 딸. 오토바이 타는 것을 좋아하는 여장부다. 대학교에서 Criminology를 전공하는데, 꿈이 경찰관이라고 한다. '으악' 하고 나를 잘 놀래키고 놀리지만, 밥 먹을 때마다 많이 먹으라고 'Madami madami(많이 많이)'를 외치는 촌데레 동생이다. 아, 귀엽게도 다다이는 'MoguMogu' 음료수를 좋아한다☺



AJ(Alvin Jay)

이른 아침 AJ 혼나는 소리에 눈을 뜨는 게 다반사다. 미운 7살답게 정말 말을 안 듣는다. 하하. 빵긋 계단을 내려가면 있는 산타크루즈 초등학교에 다닌다. 밥은 국물하고만 먹고 처키(초코우유)를 좋아한다. 시내에 다녀오는 길이면 하나씩 사다주는데, 맨날 말 안듣다가 그때만 '아떼, 살라맛(누나 고마워)'이라고 수줍게 말한다. AJ랑 가끔 펌프로 샤워하러 가는데, 펌프질 열심히 해주다가 양동이 들고 튀기도 한다. "야! 에이제이!! Halika dito!(이리와!) "

아띠들의 크리스마스



사실 그리 특별하진 않았다. 하하.

12월 내내 크리스마스를 준비했는데, 막상 당일엔 할일이 없었다.

마침 마리아 친척집에서 빙고 게임이 벌어졌다. (도박이지만, 유희삼아 참여했다는..ㅎㅎ) 마침 마실 삼아 윗마을로 올라온 에밀리오, 엘레나! 라온아띠가 힘을 합하여 게임에 참가했는데... 그 결과는?

연속 부진을 면치 못하다, 마지막 블랙아웃!(한 판이 전부 채워져야 한다) 엘레나가 2연승을 거머쥐게 된다. 블랙아웃은 판돈이 일반 게임보다 커서(두 판에 5페소다) 떴돈?! 100페소를 벌었다. 일어서려고 하자 어머니들이 더 하고 가야 한다며 붙잡으셨다. 2번 잃어 드리고 나서야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필리핀 빙고 게임 룰!

1. 사진에서처럼 숫자가 적혀 있는 판을 산다. 한 판당 1페소다. 보통 4~6판, 많게는 8판을 산다.
2. 로또처럼 한 명이 대표로 숫자를 뽑아 외친다. 해당 숫자에 돌멩이를 놓는다.
3. 한 줄이나 양 끝 숫자가 채워지면 빙고!
4. 빨리 빙고가 된 사람이 판 돈을 다 가진다. 유후

* 판을 많이 할수록 확률이 높아지고, 눈을 빨리빨리 돌려 해당 숫자를 찾아야 한다. 생각보다 쉽지 않다.

사진1



아이들의 새해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1

12월 31일 밤. 아이들이 저마다 폭죽을 터뜨리기 시작한다. 동네방네 폭죽 소리로 시끄럽다. 새해에 폭죽 터뜨리는 것이 필리핀 문화지만, 이 시기 폭죽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사진2

1월 1일이 되자 온동네가 폭죽소리며 각종 확성기 소리로 가득했다. 민철 오빠도 지지 않고 근처 양동이를 두들기기 시작했다.

사진3

민철 오빠네 집에서 한컷! 손으로 2016을 만들어 보았다. 2015년을 함께 한 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2016년이라니! 서로 나이 한 살 더 먹었다고 놀렸다. 하하. “오빠, 이제 몇살이지?ㅋㅋㅋ” “조용히 해라”

사진4

에밀리오 오빠네 어머니, 아떼가 한 상 차려주셨다. 밤새 먹고 노는게 필리핀에서 새해를 보내는 방법이라고 했다. 실컷 먹은 아이들은 부른 배른 두들기며 잠이 들었다고..

-특별편-

엘레나의 새배 드리기



Happy New Year!

우리 집은 이글레시아 니 크리스토(IGLESIA NI CHRISTO)라는 종파를 믿는데 이 곳은 크리스마스를 명절로 여기지 않고 새해를 아주 크게 보낸다. 새해를 맞아서 휴가를 받아 객지에서 생활하고 있던 Ymana 패밀리가 모였다. 셋째 랜디오빠, 넷째 레이몬드 오빠, 오빠의 아내 비아언니. 다섯째 지나 언니, 언니의 남편 브라이언형부, (첫째 로날드 오빠는 사우디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 지나 언니의 두 딸 야나, 자이나도 함께 와서 집을 밝혔다.

그리고 가져왔던 한복을 꺼내 입고 우리 가족을 포함한 아랫마을 모든 어른들께 새배를 드렸다. 산타크루즈에 주민으로써 살고는 있지만 아직 몇몇 가족들과만 안면을 터서 이를 기회로 한국, 라온아띠를 알리고 싶었다. "이 때 아니면 언제 입어보겠어!" 라고 스스로 있는 기운 없는 기운을 다 끌어 넣었지만, 부끄러운 게 사실이었다. 하지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그런 마음들도 눈 녹듯이 사라졌다. (사진도 엄청 많이 찍혔다. 누군가의 페이스북에 남아있겠지...부들부들)

1월 1일 당일은 해진이와 함께 근처 강에 갔다. 강에서 수영하고 물에 몸을 담구고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에서는 절대 보내지 못할, 필리핀이기 때문에 보낼 수 있었던 특별한 1월 1일을 보냈다!

필리핀의 결혼문화



Happy Wedding!

엘레나는 나나이 이봇이 초대해주셔서 팡가시난 옆 잠발레스 주의 마신록(Masinloc)이라는 지역에서 열리는 외사촌 (이모의 딸)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필리핀식 웨딩에 참여하면서 지켜본 색다른 결혼 문화 10가지를 소개한다!

필리핀의 결혼문화

Happy Wedding!

#1 우리나라 결혼식에서는 하얀색을 입지 않는것이 불문율처럼 자리잡아 있지만 필리핀에서는 복장이 자유롭다. 심지어 내가 준비해 간 블라우스가 너무 노출이 많은 것 같아 가디건을 들고 갔는데 사람들이 안 입는 게 낫다고 가디건을 뺐어갔다.



Happy Wedding!

#2 서양식! 베스트맨, 브라이드메이드(Bridesmaid), 그룸스맨(Groomsman)이 있다.



Happy Wedding!

#3 둘의 결혼을 증명하는 증인들을 세운다. 대부분은 어른들. 그리고 들러리들과 증인들은 청첩장에 이름이 올라간다. (청첩장 사진을 못 찍었어요...)



필리핀의 결혼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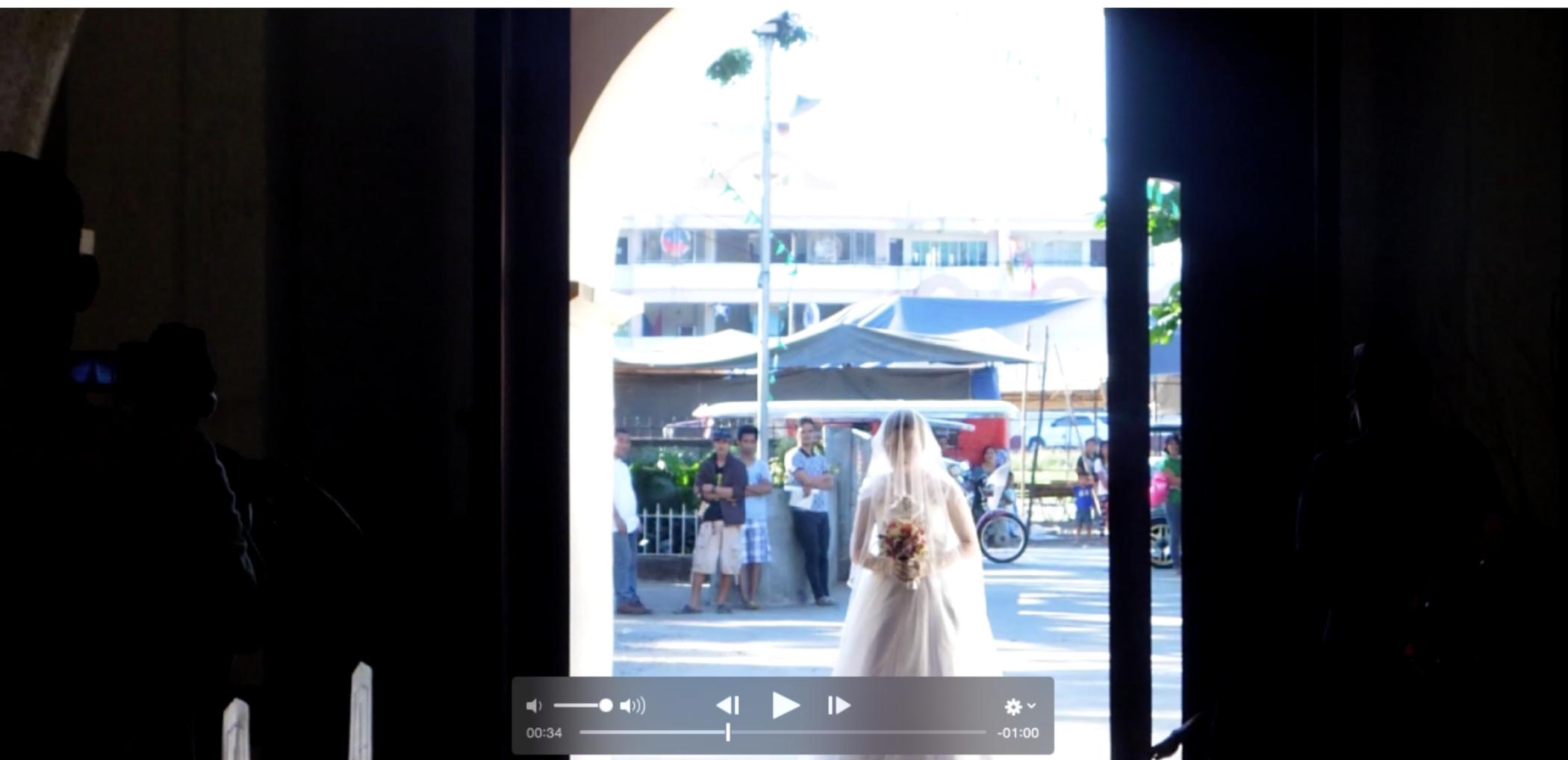
Happy Wedding!

#4 신랑이 부모님 팔짱끼고 입장한다



Happy Wedding!

#5 신부는 혼자 버진로드를 걷는다.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필리핀의 결혼문화

Happy Wedding!

#6 결혼식 과정 중 신랑과 신부는 함께 줄로 엮이는 순서가 있다.



Happy Wedding!

#7 신부네 집에서 리셉션을 진행한다.
리셉션 자리도 이미 정해져 있다.
모든 사람들이 식이 끝나고 신부의 집으로 이동한다.



Happy Wedding!

#8 신랑과 신부가 방에 함께 들어가기 전
먼저 촛불을 키고 둘의 행복을 비는 기도를 올린다.



필리핀의 결혼문화

Happy Wedding!

#9 밤새 춤추고 노래한다 (보통은 비디오케를 이용하는데 이 집은 라이브 밴드를 불렀다) 밤새 시끄러워도 저 집은 경사가 있나보다~ 하고 생각한단다. 그리고 행사를 진행하는 MC가 한 명 있어서 짫꿍은 게임을 시키기도 한다. 처음 만난 사이에 뽀뽀를 시켜서 깜짝 놀랐다...



Happy Wedding!

#10 신랑과 신부가 단독으로 함께 춤추는데 노래가 끝나기 전 사람들이 돈과 테이프를 들고와서 신랑과 신부의 옷에 길게 붙인다. 이 리셉션에서는 MC가 세 곡을 가지고 춤추게 했는데 1000페소, 500페소, 100페소 순으로 더 많은 돈을 붙일 사람 순으로 앞에 나와서 신부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리스트에 본인 이름을 적고 각자 신랑 측이나 신부 측에 돈을 붙였다. 필리핀식 축의금인 것 같다.



필리핀의 결혼문화

Happy Wedding!

팡가시난을 벗어나는데 5시간이나 걸린 긴 여행 끝 보게 된 필리핀식 웨딩. 한국에서도 모르는 사람 결혼식에는 잘 가지 않는데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신 나나이께 감사드린다. 또 신랑과 신부가 정신이 없을텐데도 이방인에 다름 없는 나를 배려해 주어서 나 또한 웨딩을 즐길 수 있었다. 두 분 오래오래 행복하길!



세 번째 장

그

밖
의

이
야
기

Anda 여행

아띠들은 12월엔 활동을 마무리 하며 Anda와 Ilocos, 총 2번의 여행을 다녀왔다.

Anda는 Volunteer 에몽의 고향이며, Tondol beach로 유명하다. Anda 여행은 아띠들, 롤리, 김을 비롯하여, 지미 총장님, 카일, 아르넬이 동행했다. 지프니를 타고 Anda에 도착하니 에몽의 어머니님과 누이들을 비롯한 여러 친척들께서 우릴 반겨주셨고, 맛있는 음식까지 대접해 주셨다. 해수욕도 즐기고 친구의 집도 방문할 수 있어서 행복했던 여행이었다.





Tondol beach



Emong's sweet home



Ilocos 여행



2번째로 간 일로코스 여행엔 필리핀 YMCA 연맹 총장님과 Ate Marcel, 지미 총장님, 꾸야 제이크, 테디가 함께 했다. 아쉽게도 코디네이터 김은 한국 방문을 위한 서류 준비로 동행하지 못했다. 2박 3일 일정 동안 Ilocos Norte, Vigan을 방문했다. 해수욕도 즐기고 유서 깊은 관광지도 돌아보며 친구들과 함께한 마지막 여행을 즐겼다.

첫째날



둘째날



둘째날



셋째날



네 번째 장

우
리
의
이
야
기



2015년의 마지막은 엄청 정신없이 지나갔다. 마무리 해야할 것은 산더미였고 시간은 촉박했다. 생각보다 시간은 너무나 빨리가면서도 느리게 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몸과 마음이 어느 정도 지친상태였던거 같다. 활동지를 마무리하고 여행을 갔으나 장시간 이동과 불편한 잠자리와 교통수단은 더욱더 나의 몸을 피곤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여행 동안만큼은 활동에 대해 신경쓰지 않아서 좋았던 것 같다. 그리고 제대로 된 준비도 하지 못 한채 홈스테이 집으로 갔고 몇 일 안 지냈지만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였다. 아마도 약 3달 동안 많이 지쳐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른다. 점점 더 나는 걸 모습은 필리핀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도 나를 마을 주민으로 보는거 같았다. 생각보다 이런 점들이 편했지만 나의 몸 안은 한국인이었다. 12월 마지막부터 물이 안 맞았는지 설사와 소화불량으로 힘이 들었다. 홈스테이 가족에게 예전처럼 잘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맛이 없는게 아닌데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든다. 그리고 2015년의 마지막을 홈스테이 가족들에게 살면서 느껴보지 못 했던 따뜻한 감정을 받은만큼 2016년 1월은 내가 가족들에게 무엇인가 드리고 가야겠다고 결심한 달이었다.



12월은 평가시안팀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달이었다. 나에게서는 필리핀에서의 한 달이라는 시간을 남겨놓고 미리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라는 게 가혹하다고 느껴졌다. 나 여기 좀 더 있을건데. 옥여싸여 단체사진을 몇 번 찍고도 마지막이라고 믿고 싶지 않아서 애써 그 순간을 외면했다. 굳이 마지막이라고 해서 그 순간을 되돌아 보려 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내일 다시 올 사람처럼 그냥 뒤돌아섰다. 그래야만 할 것 같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보다는 마지막에 익숙해보였다. “Thank you.” “Salamat po.” 수십 번은 듣고 또 나도 수십 번은 말했다. 평소에도 오고가며 습관처럼 쉽게 내뱉은 그 말이 이번엔 무겁게만 느껴졌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내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했던 순간까지 ‘고맙다’라는 말로 잘 포장되는 듯해서 마음이 어려웠다. 내가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일까라고 되돌아 봤을 때 제 분수에 넘치는 말이기엔.

모든 끝에는 시작이 함께 하듯이 활동이 끝나고 우리는 홈스테이를 시작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애국가에서만 보우하시나보다 했는데 필리핀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너무 좋은 가족들을 만나게 되어 그저 행복하고 감사하다

헤지의 이야기

언제나 그랬듯이 사람들은 텅 빈 나를 채워주었다. 이 곳에는 나의 엄마, 아빠, 언니, 오빠 동생 그리고 친구가 있다. 이것 저것 고민하다가 어느 새 사람들과 부대끼며 한바탕 웃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입가에 미소를 떠올리는 나를 발견한다. 그러다보면 지지부진 했던 고민들도 사라진다. 이래도 되는 걸까, 시험을 앞두고 침대 위에서 뒹굴거리며 현실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 하지만 내 속이 비어 있어서 별 것도 아닌 일에 괜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놀랐던 것 같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배움으로 내 속을 가득 채워 한국에 돌아가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가 되고 싶다.



그동안의 개인 에세이엔 주절주절 뭔가를 많이 썼는데, 마지막 에세이는 존경하는 교수님의 시 한편으로 대신하려 한다.

그토록 마음에 와닿지 않아 머리로 이해하려 했던 교수님의 시가 이제 조금 공감가는 까닭은 5개월 간의 라온아띠가 나에게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나와 너

유장춘

내가 일하고
네가 누리니
정말 기쁘지 아니한가

내가 힘들어
네가 편하니
아주 즐겁지 아니한가

나의 눈물로
네가 웃으니
진정 뜻 있지 아니한가

내가 져주어
네가 이기니
실로 복 있지 아니한가

내가 아파서
네가 나으니
깊이 감사할 뿐이라네

너는 그러지 못해도
나는 그리함세
내가 그러지 못하면
네가 그리하게

너와 내가 함께
그렇게 살아가세
나와 내가 함께
그렇게 살다가세



최종 보고회에서 만나요!

Maraming maraimg Salamat po (많이 많이 감사합니다)!